

# 집착 버리니 화해의 길 열려

박태원 교수가 쓰는

## 불교로 보는 인생

### 남과 북의 만남

다시 만났다. 어릴 적 생이별한 아들을 보자 차마로 말을 잊었던 어머니가 입을 연다. 간혹 이런저런 정치적 수사가 어설피기도 하였지만, 혈육의 본능적 끌림과 그리움은 실로 눈물겨웠다. "어머니, 이제야 왔습니다!" "네가 순환이?" - 환갑 넘어 북에서 온 아들을 활짝에 앉아 어루만지는 팔순 어머니의 여인 팔과 손, 길 잃고 헤매다 어머니 품에 안겨 안도하는 어린이가 표정으로 어머니 손에 얼굴을 비비는 늙은 아들. 그 사진이 너무나 가슴 아리기에 곁에 오려 두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분명한 통일 열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감상은 '남선 것들의 포용'과 '집착하지 않음의 공덕'이었다. 남북

분단의 가장 큰 해악성은 '이질적인 것의 밀착'이라 생각한다. 인위적 산물인 정치 이념을 경계로 삼아, 남과 북은 그 혈연적, 역사적, 문화적 낯익음을 철저히 배반해 왔다. 남북 분단은 '낯익은 것들의 낯설어짐'이었고, '동질성의 이질화 과정'이었으며, '낯설어진 것들에 대한 밀착'과 '미움의 증폭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필연적 후유증으로 울타리 안의 획일주의가 강화되었다. 남은 남대, 북은 북대로, 이념의 울타리 안 구성원들을 단단히 묶어 줄 획일적 사고 방식을 여러 형태로 고안하여 실현하였다. 그러나 다원주의적 공존과 평화의 질적사상은 그 과보였을 밖에.

통일은 정복적 획일화가 아니다. 낯선 것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통일의 실제 내용이다. 모처럼 굳게 맞잡은 남북의 손에서 비로소

'낯설어진 것들의 공존 가능성'을 엿본다. 남과 북의 우리는 불과 반백년 사이에 얼마나 낯설게 멀어져 왔던가? 그리고 그 낯설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여겨왔던가? 울타리 안의 낯익은 것들끼리만 단단히 묶어 '울타리 밖 낯선 것들을 경계하고 증오하며 공격하면서, 우리네 끈고 혼흔하던 심성은 얼마나 날카롭게 날이 서 왔던가? 남

왜곡시킨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근거 없는 우월 의식, 소위 정상인의 이른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온갖 인종적, 민족적 편견들은 자연스런 차이들을 인위적인 차별로 일그러뜨린다. 성별, 나이, 신분, 용모, 직업, 종교 등의 언어를 매개로 만들어진 차별의 경계와 울타리는 인간사 고통의 중요한 원

## 분단이 낳은 미움과 편견들 자비로 포용할때 통일 이뤄

의 어머니와 북의 아들을 손잡게 해주는 시절 인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모처럼 낯설음을 안을 수 있는 여래장(如來藏)의 잠재력, 그 무집착의 힘을 확인한다. 어차피 낯선 다른 것들과 어울려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 한국인과 일본인이 얽혀 사는 사바세계. 그런데 인간은 그 자연스러운 차이를 그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만들어낸 이 런저런 기준으로 차이를 차별로

천이다. 어째서 이런 왜곡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아마도 인간 생명의 첫출발부터 개입하고 있는 근본 무지의 성향 때문인 듯하다. '무시(無始)'라는 말의 심오한 뜻은 접어 두더라도, 생물학적 언어로 보건대 그 근본 무지의 성향은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 특유의 의식 기능으로 자리잡으면서 더욱 뚜렷하게 작동했을 것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如實하게) 보지 않고 이런저런 선입견

# “번뇌망상 여의면 해탈의 경지 도달”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공부하고 있지만 청정한 법계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영원한 진리로서 한번도 이 세상에 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천 백억 화신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여래는 오락가락 세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희유하게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시고 나니 부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하는 중생심이 살아 있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칠로 나무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신심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처님 모습만 형상화해서 놓고서 불상조성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 형상에 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심오한 법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상에 마음의 묘법을 더하는 것이 정

그러므로 예로부터 5백 나한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응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5백 나한 점안법회에 동참한 인연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쯤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마음을 5백 나한님들의 경지에 비추어 봅시다.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잠시를 앓아 있어도 어떤 때는 우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온갖 잡념들이 일어나는 중생심을 여의고 하

다면 부처님의 법을 따라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얻은 나한님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라한과를 이룬다는 것은 멸고 거향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행을 근본으로 삼고 잘못을 참회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이 몸이 살아 있을 때 삶의

## 법회 중계

### 덕천사 5백나한 점안법회

(2000년 8월 23일)



신허 스님 (통도사 주지)

'나'라는 아집을 버리고  
남을 부처님처럼 모시면  
수행은 저절로 됩니다

점안(點眼)의 의미는 형상에 집착하는 중생심을 버리게 하고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귀의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점안법회를 갖게 된 5백 나한은 부처님 재세시 수행을 통해 아라한과를 이룬 뛰어난 부처님 제자들로 잡념이 없고 망상, 집착을 여의고 해탈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심독자재의 경지에 올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쓰며 육신통을 두루 갖추고 가깝고 멀거나 한 생각으로 보고 듣고 가 을 수 있게 됩니다. 중생들이 불교학 연구 체계를 그대로 답습해 왔지만, 90년대 이후 미국 불교학계에 접점 일본인의 연구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gobaou@buddhania.com)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해탈해야 합니다. 살아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지금 해탈해야 합니다. 한순간 한 순간을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의 마음에 비추어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는 아집을 버리고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에 살고자 한다면 타인을 부처님 시봉하듯 모시며 살겠다는 원력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수행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부처님의 모든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 자주 듣고 배워 실천이 없다면, 점안 의식을 치르지 않는 불상처럼 형상만 남게 되어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체득한 불법의 큰 바다에서 항상 함께 하는 불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ia.com)

# 日불교 탈피...美 입장에서 불교보기

미국 불교학의 현재 모습을 알고 싶다면, 우선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와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에서 매년 불교 가을에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살펴야 한다. 두 학술회의는 미국의 불교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검증받는 데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 등지에서 온 교수·대학원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불교학의 가장 큰 변화는 구세대 학자들이 일본의 불교학 체계를 그대로 답습했던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불교학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불교학과의 결별로 봐도 좋다.

우선 미국의 불교학자들은, 일본불교에 내재되어 있는 종파주의가 일본불교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불교를 연구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이로 인해 불교 자체도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 세계의 불교학 <24> 미국 ⑥

일본의 불교학자들은 중국적으로 자신의 불교 즉 일본불교를 연구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인 당나라와 송나라 전반기까지의 불교를 연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미국의 불교학자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일본 불교학의 좁은 '차이로 중

단 것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 불교학계는 몇 명의 엘리트 고승들의 사상 연구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불교 자체의 전통과 수행 그리고 일반 불자들의 종교관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좋은 예가 80년대부터 미국의 불교학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



◇일본계 사찰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들.

## 교리·철학 등 텍스트 방법론 탈피

## 염불·의식 등 전통 수행문화 중시

국 및 한국불교를 이해해 왔다 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불교학 연구방법론은 주로 경전·어록 등의 텍스트 연구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 불교학계 역시 교리와 철학 쪽에 연구의 비중을 실어왔다. 다양한 불교 의식이나 '절' '염불' 등 불교의 신앙적 특성 같은 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

한,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에 대한 연구다. 그 동안 위경들은 소위 '가짜 경전'이라는 이유로 학자들로부터 소외되었는데,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중국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경전이나 어록 등의 텍스트 중심의 연구가 아닌 불교 미술이나 사리탑, 비석 등 다

양한 불교의 문화적 요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불교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내에서 교수 자리를 구할 때 더 명확히 드러난다. 전통적인 유식학이나 화엄사상만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수로 채용되는 경우가 다양한 불교학 관련 분야를 공부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힘이 든다. 다시 말해서 연구하려는 대상에 대한 공부 못지 않게 다양한 학자로서의 관심과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학 과정에서 불교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들에게 용수·법장 스님 못지 않게 푸코, 레비스트라우스, 데리다 등의 철학자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 미국불교학계는 일본의 불교학 연구 체계를 그대로 답습해 왔지만, 90년대 이후 미국 불교학계에 접점 일본인의 연구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댁준비에 지친 수행승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로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가지 중 藥 1207가지 下藥 1257가지로 모두 3667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장애, 산후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효험이 있다.

경건하옵는 스님

오늘도 養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친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대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신삼) 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심광수 씨



##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심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치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也)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